

# 일본인의 원령(怨靈)신앙

- 천도(遷都)사상과 대불(大佛)조성을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10@tu.ac.kr

## <目次>

- |                      |                   |
|----------------------|-------------------|
| 1. 서론                | 3.2 헤이안교에의 천도     |
| 2. 케가레와 원령(怨靈)사상     | 4. 원령과 고려신앙(御靈信仰) |
| 3. 천도(遷都)와 대불조성      | 5. 결론             |
| 3.1 대불과 나라불교의 방치(放置) |                   |

主題語: 怨靈사상( a vindictive spirit thoughts), 遷都(transfer of the capital), 케가레(KEGARE), 大佛造成(make a gigantic image of Buddha)

## 1. 서론

일본에서 대정봉환(大政奉還たいせいほうかん)이 이루어지고 원호(元號)가 게이오(慶応)에서 메이지(明治)로 바뀌기 직전, 근대 일본의 탄생을 목전에 둔 바로 그 시점에서 메이지 천황은 시코쿠(四国)의 가가와켄(香川県) 사카이데(坂出)에 있는 스토쿠(崇徳)천황의 능(陵)으로 칙사를 파견하였다. 왜 메이지천황은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헤이안 말기의 상황(上皇)천황의 묘에 칙사를 파견했던 것일까?

일본은 본래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것이 헤이안 말기에 대두된 무사들에게 정권을 내어준 이래, 천황은 통치자로서 권좌를 누렸던 적은 없다. 그저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정권이 천황의 손으로 돌아온 사건이 바로 대정봉환이다.

그럼, 왜 천황은 정권을 무사에게 넘겨줘야 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이유를 여러 개 들 수 있지만, 천황가에서 이것이야말로 정권을 잃게 된 이유라고 굳게 믿었던 바는 곧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江戸시대 말기, 慶応 3년 10월 14일(1867년 11월 9일) 江戸 막부의 제 15대 장군 徳川慶喜가 정권을 반상하기로 메이지천황에게 상주하고, 다음 날 15일 천황이 이것을 운허한 정치적 사건

스토쿠천황의 저주였다. 스토쿠천황은 호겐의 난<sup>2)</sup>(保元の乱)에서 고시라가와(後白河)천황에게 패하여 사누키노쿠니(讃岐の国/현재의 香川県)로 유배되어 그 곳에서 천황가를 저주하며 죽어갔는데, 죽음에 임박하여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을 남겼다<sup>3)</sup>.

日本国の大<sup>ま</sup>魔<sup>ま</sup>縁<sup>えん</sup>(大魔王)となり、皇を取って民とし民を皇となさん

즉 스스로 원령(怨靈/おんりょう)이 된다고 선언 한 위에, 천황을 백성의 지위로 내려앉히고 백성을 정권의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말은 그 뒤 멀지 않아 무가정관가마쿠라(鎌倉)막부의 탄생이라는 형태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적어도 천황가 사람들은 스토쿠천황의 저주 때문에 정권이 찬탈되었다고 믿었고 두려워하였다. 그 후 아시카가(足利), 쇼쿠호(織豊), 도쿠가와(徳川) 등 위정자는 바뀌어 갔지만 천황에게 정권이 돌아오지는 못했다. 즉 천황가에서 보면 스토쿠천황의 저주는 막부 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효력을 발휘하였던 셈이다. 따라서 메이지천황은 스스로의 치세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원령이 되어 저주를 한 스토쿠천황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한 칙사를 파견하였던 것이다. 사실 당시 메이지천황이 스토쿠천황의 영(靈)에게 바랐던 것은 허락을 받는 그 자체만은 아니었던 같다. 허락과 동시에 자신의 정권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정식으로 궁내청(宮内廳)기록에 남아있는 사실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혀 온 천황에게 수호를 부탁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있어서 원령신앙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관념 중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일본인들의 의식 중에는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나 비명횡사를 한 사람의 영혼이 사후 원령이 되어 사람들에게 액운과 재난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러한 원령을 두려워 한 까닭에 어떻게든 난폭한 영혼을 위로하여 진혼(鎮魂)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생겨난 진혼의 방법이 원령을 신으로 모시는 고료신앙(御靈信仰)이다.

필자는 그동안 일본인의 케카레<sup>4)</sup>(이하 케갈라 함)사상과 관련한 몇 편의 줄고를 제출하였다. 그런 과정 중에 일본의 원령신앙이 케갈라사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추론하게 되었

2) ほうげんのらん: 平安시대 말기 保元 원년(1156년)dp 황위계승문제, 섭관가의 내분에 따라 조정이 後白河天皇과 崇徳上皇으로 분열, 쌍방 무력충돌로 이어진 정변

3) <http://ja.wikipedia.org/wiki/>(검색일 : 2014년 2월10일)

4) 시간-공간-물체-신체-행위 등이 이상(理想)적이지 않은 상태나 성질로 하여 거리낌의 대상이 되어있는 것. 神道の 종교관념

지만, 구체적 주제를 들어 검토한 적은 없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일본의 불교 전래 이후, 나라(奈良)의 대불(大佛)조성이 원령신앙과의 깊은 관련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천황 서거 후, 당시 일본국으로서 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과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천도를 단행하고 있었던 점은 원령신앙과 케갈레사상과의 깊은 관련성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고대 일본인은 人災이든 天災이든 그것은 원령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원령신앙과 케갈레사상의 접목, 어떠한 배경 속에 대불조성과 천도가 이루어졌었는지, 그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원령신앙, 대불조성, 그리고 천도사상에 관한 배경의 일면을 검토 분석하는 고찰을 통해 나름의 유의한 의의를 찾고자 한다.

## 2. 케갈레와 원령(怨靈)사상

일본의 경우 다른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례를 할 경우 자신의 친족이라면 상주는 장의(葬儀) 후, 음식을 제공한다. 소위「오기요메(お清明)」라고 하는 것이다. 장례식에서 친족 이외의 경우 참례자에게는 접수처에서 가이소오례(会葬御礼)라는 것을 나누어 주는데, 그 안에는 상주의 인사말과 작은 봉지 안에 소금이 들어있다. 거기에는 「오기요메시오(お清明塩)」라고 쓰여 있으며 조문자들은 조문 후 집으로 귀가 할 시, 대문이나 현관 앞에서 자신에게 소금을 뿌려 몸의 케갈레를 제거한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お清明과 お清明塩는 일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민속습관이다. お清明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을 お清明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장례가 お清明의 정반대 현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즉 장례의식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장의를 치르거나, 혹은 장의에 참례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극히 추상적인 무엇인가가 몸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행위가 즉 お清明인 것이다.

무엇인가가 몸에 붙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일본에서는 케갈레라고 한다. お清明이라는 것은 청결을 의미하며, 케갈레라 함은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부정(不淨)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추상적, 정신적, 감각상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나 정밀분석 장치를 통해서도 검출이나 측정은 불가능하다. 세탁이라면 의복에 붙은 더러움, 목욕이라면 땀이나 때를 씻어낸다는 것처럼 그 대상이 분명하여 효과를 실감할 수 있지만, 케갈레현상은 어디까지나

이미지일 뿐인 것이다. 일본인은 장례나 사람의 죽음에 대한 *ケガレ* 개념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ケガ레*가 몸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비해 *ケガ레*의 반대어 즉 淸淨한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을 *ハレ*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하레스가타(晴れ姿), 하레기(晴れ着), 하레부타이(晴れ舞台), 하레노히(晴れの日=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등)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ハレ*도 *ケガ레*도 모두 특별한 일로써 결코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그에 비해 일상의 일을 *ケ*라고 하며, *ケ*의 경우 대부분 식사와 관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大辞泉(小学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술되고 있다.

*ケ*로 발음하는 것: 毛/ 작물 특히 벼이삭(稻の穂). 食/ 식물, 식사. 筍/ 식물을 담은 그릇(고어: 물건을 넣거나 담은 그릇, 본래는 밥그릇). 蓑/ 정식이 아닌 것. 또는 일상적인 일(노인어로 평소, 일상, 사사로운 일, 공적(公的)이 아님. 반의어 晴れ).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蓑着(ケギ)/ 평소에 입는 평상복, 蓑稻(ケシネ)/ 농가의 자가 식용 곡물. 毛付け(ケツケ)/ 논밭의 벼·보리 등의 작물을 정하는 것. 연공을 정하기 위해 작물의 작황을 인정하는 것. 間水(ケンズイ)/ 1일 2식이었던 시대에 조식(朝食)과 석식(夕食) 사이에 먹는 간식. 朝餉(あさげ)·夕餉(ゆうげ)등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ケ*時(ケどき: 식사하는 때), *ケ*ツケまいり(모심기가 끝난 것을 신에게 보고하고 풍작을 기원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상을 보면, 蓑着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ケ*라는 것은 식물, 그 중에서도 쌀이나 이삭과 관련된 말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ケ*라는 개념은 도작(稻作)문화와 함께 일본에 전해졌거나 혹은 전해진 후에 일본 독자의 것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럼 *ケガ레*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일설에 따르면 *ケガ레*는 *ケ*·*枯れ*라는 것을 의미한다. *ケ*가 *枯れる*라는 것은 식물이 마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자면 일상성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며, 깨어졌으니 어떻게든지 본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ハレ*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벼는 봄에 모를 심고 가을에 수확을 한다. 수확을 한다는 것은 밭은 고갈(枯れ) 상태와 같다. 이것이 *ケ가레*이다. 벼이삭을 수확한 뒤에 행하던 제사가 풍양제(豊穰祭)이며, 오곡의 풍성한 수확을 신에게 감사드리던 마츠리이다. 이 마츠리가 *ハ레*인 것이다. 결혼도 입학·졸업도 일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일상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결혼식, 입학식, 졸업식이다. 그 날 입는 옷은 당연히 晴れ着이다.

그런데 이처럼 *ケ가레*는 사계의 변화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지만, 인위적으로

5) 예: 蓑(け)にも晴(は)れにも(여느 때나 좋을 때나)

발생되는 것도 있었다. 그것이 죄(つみ)이며 고대(신화시대)의 죄로는 天津罪(あまつつみ)와 国津罪(くにつつみ)를 들 수 있다<sup>6)</sup>.

天津罪는 高天原<sup>7)</sup>에서 난폭함을 휘둘러 추방된 스サノオノミ코ト의 죄로써 이것은 농업 혹은 제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농업의 방해라는 점에서 天津罪는 본디 雨埴(あめつつみ)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国津罪는 근친상간이라는 터부, 자연현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근친상간이 터부인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일족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이것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세계 공통의 것이다. 또한 곤충이나 새에 의한 재해를 죄라고 생각한 것은 고대에 있어 재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라는 관념이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天津罪 중에는 생백(生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동물의 가죽(毛皮)을 벗긴다는 것은 털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이것도 케ガレ의 일종이다. 여기서 케ガ레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죽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죽음과 장의는 케가레한 것이라는 관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케가레를 정화하는 하레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おおはらえ(大祓)가 그것이다. 大祓는 6월과 12월 그믐에 시행되는 것으로 저지른 죄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행사이다. 6월의 大祓를 夏越の祓(なごしのはらえ), 12월의 그것은 年越の祓(としこしのはらえ)라고 한다. 또 정기적이지 않지만 임시로 죄가 발생한 시간에 맞추어 행하는 것이 있는데 즉 미소기(禊) / 미소기(みそぎ)이다. 일본의 고대인은 죄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죄를 범한 본인이 형벌을 받은 후에도 죄에 깃들인 재해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천지를 떠돌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법상 제재를 과한 뒤에도 더욱이 「祓」이라고 하는 주술적 종교적 의식을 필요로 하였다. 미소기(禊)를 행하는 것은 죄에 깃들인 재난의 기운을 씻어 내보내기 위해서이며, 여기서

6) 天津罪 : 畔放(あなはち) 밭고랑을 부수는 것. 溝埋(みぞうめ) 밭에 물을 대는 고랑을 메우는 것. 樋放(ひはなち) 밭에 물을 대는 통을 부수는 것. 癩播(しきまき) 다른 논밭의 작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것. 串刺(くしし) 남의 논밭에 말뚝을 세워서 수확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生剥(いきはぎ) 살아 있는 말의 가죽을 벗기는 것. 逆剥(さかはぎ) 말가죽을 엉덩이 부분부터 벗겨내는 것. 屎戸(くそへ)제사장을 분노 등의 오물로 더럽히는 것 등  
 国津罪: 生膚断(いきはだち)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死膚断(しにだち) 사람을 살해하는 것. 白人(しろひと) 피부색이 하얗게 되는 병 胡久美(こくみ) 굳은 살(혹)이 생기는 것. 자기어머니를 범하는 죄: 근친상간. 자기 아이를 범하는 죄: 근친상간. 모친과 아이를 범하는 죄. 타인의 부녀와 그 딸을 범하는 죄. 가축을 범하는 죄: 獸姦, 곤충의 재난, 곤충이나 지네, 뱀 등에 의한 재난, 우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高津鳥の災: 하늘을 나는 새에 의한 재난, 畜什し(けものたおし)가축을 저주하여 살해하는 것. 蟲物(まじもの) 타인을 저주 살해하는 것 등  
 7) 高天原(たかあまのはら): 『古事記』의 일본신화에서 天津神이 살고 있다고 하는 장소  
 8) 神道에서 자신의 몸에 부정함(ケガレ)이 있을 경우, 중대한 神事 등을 행하기 전, 혹은 도중에 자신의 몸을 氷水, 滝, 川, 海 등에서 씻어 깨끗이 하는 행위. 유사한 것으로 水垢離(みずごり)가 있다.

재난의 기운이란 케갈레를 의미한다.

케갈레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음을 비롯하여 출산, 여성의 생리, 화재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죽음의 케갈레=시에(死穢))는 가장 큰 것이며, 출산이나 생리와 동반하는 출혈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는 케갈레로 인식되어졌다. 죽음을 케갈레로 생각하는 이유는 사체는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면서 구더기가 들끓는다. 방치해 두면 주위 사람들이 견딜 수 없으며 돌림병의 원인도 된다. 고대 일본인들은 역병은 악령(悪靈)·원령(怨靈)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경험에 의하여 죽음의 케갈레와 연관된다고 생각하여 死者를 격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격리하는 장소는 당연히 묘이다. 죽음이라는 케갈레에 대한 하레는 장례식이다. 따라서 장례식의 본래 목적은 고인을 기리기보다 케갈레를 정화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인간이 가장 거리끼는 것이어서,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백정(穢多), 非人(江戸시대 사형장에서 잡역에 종사하던 사람) 등,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차별받아 온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럼 일본인은 언제부터 죽음을 케갈레로 생각한 것일까? 전술하였듯이 케갈레개념이 도작 문화와 함께 전래되었다고 하면 전래 이전에는 그런 사고는 없었던 것일까.

일본신화에는 남신인 이자나기(イザナギ)와 여신인 이자나미(イザナミ) 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처 이자나미가 죽자 그것을 비탄한 이자나기는 황천국(요미노쿠니/黃泉國・よみのくに)을 방문하여 이자나미를 만난다. 그런데 이자나기는 부패하여 너무나 달라진 이자나미의 모습에 놀라 나머지 도망쳐버린다. 화가 난 이자나미는 이자나미를 쫓아오지만 이자나기는 현세로 나오는 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린다.

여기서 필자는, 이자나미가 놓은 돌은 소위 결계(結界)의 증거로써 여인금제 결계비의 기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로서는 여인금제와 관련한 줄고를 통해 여인결계비, 혹은 결계석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추론하지 못했었다. 이자나미의 경우 현세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이지만, 신사에서는 신의 영역(神域) 즉 청정역(淸淨域)을 가리킨다. 신사에서는 금줄인 시메나와(注連縄/しめなわ)가 결계를 의미하며, 지역에서는 길 위에 도소진(道祖神・どうそじん/行神:수호신 둘을 합체한 석상으로 행인을 지키는 신)이라는 조각된 돌을 볼 수 있으며, 道祖神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마을에 케갈레

9) 죽음에 대한 케갈레. 일본의 고대·중세에는 死는 공포의 대상으로서 死는 전염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체 그것과 접하는 유족은 死穢에 물들어버린다고 하여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집에 돌아올 때는 淸め를 하였고, 유족이 忌中에 갇들인 것을 淸정히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었다. 이로써 일본신화를 통한 결계의 기원을 추론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차기를 기하고자 한다.

이상의 설화에서 주목할 것은 처를 만나고자 하였던 *イザナギ*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イザナミ*는 죽어서 황천국으로 격리되었는데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삶과 죽음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며, 생과 사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필자를 포함하여 생과 사는 단절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신화시대에 있어서는 적어도 생과 사는 단절이 아니라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것일 뿐이며 연속된 것이었다고 보며, 언제부터 죽음이 생과의 단절을 의미하게 되었는지 제고한다면 즉 도작문화와 함께 대륙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불교의 윤회전생(輪廻轉生)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다른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나므로 그 의미에서 연속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지므로 죽음은 연속이 아니라 단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인지도 모른다.

죽음이 삶의 연장성 상에 있었기 때문에 신화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더구나 *ケガレ*도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イザナギ*는 큰 돌을 결계로서 놓아둔 것에서 *イザナミ*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돌이 없었다면 그녀는 황천국에서 현세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옛날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생과 死의 경계선은 불명료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황천국에서 도망쳐 온 *イザナギ*는 강에서 미소기(禊みそぎ)를 행하고 있다. *イザナギ*는 처의 부패된 모습을 *ケガレ*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녀의 죽음 자체를 *ケガ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황천국에서 도망쳐 나온 *イザナギ*는 *ケガレ*를 씻어내기 위해 미소기를 행하고 있다. 미소기는 물 안에 들어가 행하여지는데 그러한 행위 가운데 여러 신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 생과의 단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죽음도 두려워하게 되었고 *ケガ레*의식도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일본의 도작문화 전래에서부터 불교전래에 이르는 시대를 일본인의 사생관(死生觀)의 전환기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에(死穢)에 대한 두려움은 곧 원령사상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3세기-7세기경까지는 고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천황이나 대호족의 능묘로서 거대한 묘를 만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진도쿠(仁德)천황의 능은 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최대의 것이라 할 만하다. 피라밋이나 시황제의 능을 보아서도 고대 거대한 묘가 많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왜 당시 일본의 국력으로 볼 때는 무의미할 정도의 토목공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그 목적은 단지 지배자의 권력과 시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즉 고분 등의 능묘에는 시에를 막고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계의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에의 크기는 피매장자의 신분과 권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권력이 크면 클수록 시에의 영향력도 강력한 것이어서, 그것을 막는 능묘는 필연적으로 거대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천황이 죽으면 모야(喪屋・もや)라고 하는 특별한 건물이 세워져 일정기간 곡읍(哭泣), 공물(供膳), 가무(歌舞) 등의 의식이 행하여졌다. 그리고 사후 얼마 간(수개월 이상도)은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것을 모가리(殯<sup>10</sup>)・もがり)라고 한다. 모가리는 유체를 백골화 시키는 과정으로 그 후 매장하게 되지만, 이 기간 동안 사자의 케가레한 영혼이 정화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전파되면서 시간을 두고 자연적으로 정화시키는 것 보다는 불의 화력으로 정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화장(火葬)이다. 불은 청정한 것이라는 인식이 불교로부터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고분이나 장기간의 모가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그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 다이카(大化)의 하쿠소레<sup>11</sup>(薄葬令・はくそうれい)였다. 간단히 말하면 장의의 간소화를 지시한 것이다.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순사(殉死), 순장(殉葬), 부장(副葬) 등의 관습도 금지되었다. 이것을 스스로 실천한 천황이 53대 준나(淳和) 천황(786~840)으로 알려져 있다. 준나천황은 유언에「사람은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다…적절히 뼈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이것을 산중에 뿌려라(人没して精魂天に還る…今宜しく骨を砕き、粉と為し、之を山中に散らせ)」라고 하여 그대로 유골은 가루로 뿌려졌다고 한다. 이것은 준나천황이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떠나가 빈 껍질이 된 자신의 유체나 능묘에 귀신이 붙어 씌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령이라는 것은 삶이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의 단절을 깨고 삶의 연장선상에 나타나는 존재다.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누구라도 놀라고 두려워할 것은 당연하며, 놀라는 자체가 곧 생의 단절을 의미하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원령은 두려운 존재였다. 원령은 한을 품은 상대가 어디에 있는 쫓아가 달라붙으며 어디든지 공중비약도 할 수 있는 일종의 공격적인 죽음의 케가레 즉 시에(死穢)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헤이안시대 원령에의 공포는 극에 달하였다. 천황을 비롯하여 궁정 귀족들이 원령을 두려워하

10) 殯(もがり): 일본 고대 행해진 장의례로서 死者를 본장하기까지 제법 오랜 기간을 관에 유체를 가안치하고 이별의 슬픔, 죽은 자의 영혼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위로하며 사자의 부활을 기원하면서 유체의 부패 및 백골화 등의 물리적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死者의 최종적인 「죽음」을 확인한다. 그 관을 안치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11) 大化 2년(646년): 신분에 따라 묘의 규모 등을 제한한 칙령



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다. 아마테라스오가미(天照大神)의 자손임을 칭하며 그것을 왕권의 근거로 하는 천황은 스스로를 가장 청정한 존재로 생각하였으며, 그 대극에 위치한 시에에 범하여지는 것을 극단으로 두려워하였고, 그 경우 죽음의 케ガレ는 원령적 존재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귀족에게 다시 서민으로 과급되는 경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 3. 천도(遷都)와 대불조성

원령신앙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료신앙(御靈信仰・ごりょうしんこう)을 들 수 있다. 원령신앙과 고료신앙에 대한 정의는 後述하고자 하며, 고료신앙에 대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政争にあけくれた貴族社会では、天災や社会不安がおこると、それは政治的事件で不遇な最期をとげた人の崇だとし、その霊をなぐさめる御霊会がさかんになった。菅原道真<sup>12)</sup>をまつる北野天満宮が建てられたのもその現れである<sup>13)</sup>。

御霊会は、はじめ早良親王ら政治的敗者を慰める行事として、9世紀半ばにはじまったが、やがて疫病の流行を防ぐ祭礼となった。北野神社や祇園社八坂神社も祭りなどは、元来は御霊信仰から生まれたものである<sup>14)</sup>。

이것은 모두 헤이안시대 부분의 기술이다.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이 이전에 원령신앙에 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일본의 원령신앙은 헤이안시대부터 시작한 것 같은 오해를 부르는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원령신앙은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고료신앙(御靈信仰), 고료카이(御霊会)라는 형태가 되기까지 원령정책이라고 할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음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2010년 헤이쥬(平城)

12) 菅原道真(すがわらのみちざね): 일본平安시대의 귀족, 학자, 한시인, 정치가. 충신으로서 이름이 높다. 宇多天皇에게 중용되어 寛平の治를 수습한 한 사람이며, 醍醐朝에서는 右大臣까지 역임하였다. 그러나 左大臣藤原時平에게 참소(讒訴)되어 大宰府로 좌천되어 현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사후 천변지변이 다발하였으므로 조정에 저주를 했다고 하여 天満천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학문의 신으로 친숙하다.

13) 『もう一度読む山川日本史』, pp.58-59

14) 『詳説日本史 改訂版』, p.66

천도 1300년제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이 방문한 나라(奈良)의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상이다. 물론 교과서에 대불 건립에 대한 기술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기에 원형신앙에 대한 기술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대불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왜 대불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었는지를 생각하면 대불이 원형에 대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하 그 검토를 해 가고자 한다.

나라의 대불을 건조한 것은 쇼무(聖武)천황(재위:724-749) 때이다. 왜 대불을 조성했는지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天皇は仏教の力によって政治・社会の動揺をしずめようと秤、741(天平13)年に国分寺建立の詔、つづいて743(天平15)年には盧遮那(るしゃな)大仏造立の詔をだした<sup>15)</sup>。

政治情勢や基金・疫病などの社会的不安のもと、仏教をあつく信仰した聖武天皇は、仏教の持つ鎮護国家の思想によって国家の安定をはかろうとし、741(天平13)年に国分寺建立の詔を出して、諸国に国分寺・国分尼寺をつくらせることにした。ついで、743(天平15)年には近江の紫香樂宮で大仏造立の詔をだした<sup>16)</sup>。

교과서가 이 기술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쇼무천황이 내린 대불조성의 조칙(大仏造立の詔)은 다음과 같이 天平15년『續日本紀』しょくにほんきに 실려 있다.

「詔して曰く。…中略…。粵に天平十五年歳は癸未に次る十月十五日を以て、菩薩の大願を發して、盧舎那仏の金銅像一軀を造り奉る。国銅を尽くして像を鎔し、大山を削りて以て堂を構へ、広く法界に及ぼして、朕が知識と為し、遂に同じく利益を蒙りて共に菩提を致さしめん。夫れ天下の富を有つ者は朕なり。天下の勢を有つ者も朕なり。此の富勢を以て此の尊像を造る。事や成り易き心や至り難き。(中略)もし更に人の、一枝の草、一把の土を持ちて像を助け造らんと情願刷る者有らば、恣に聴せ。国郡等の司、此の事に因りて百姓を侵擾し、強いて収斂せしむること莫れ。遐邇に布告して朕が意を知らしめよ」<sup>17)</sup>

15) 『もう一度読む山川日本史』, p.42

16) 『詳説日本史 改訂版』, p.42

17) [http://chushingura.biz/p\\_nihonsi/siryu/0101\\_0150/0108.htm](http://chushingura.biz/p_nihonsi/siryu/0101_0150/0108.htm)(검색일: 2014년 3월 6일)

한글역: 덴표(天平) 15년 15일로, 중생구제·불법홍융의 큰 원을 세우고 루샤나(盧遮那)대불의 금동상(金銅像) 한 체를 만들기로 하겠다. 나라 안의 동(銅)을 모두 모아 상을 주조하고, 큰 산에서 나무를 벌채하여 불전을 세워 널리 세상에 보급하여 불도성취의 뜻을 같이하며, 더불어 불은(佛恩)으로 깨우친 깨달음을 펼치고 싶은 생각이다. 천하의 부귀와 권위를 가진 자는 나(쇼무천황)이다. 이 부와 권위를 말하자면 존상(尊像)을 만들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발원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천황의 조칙이 내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조칙으로 내려진 것이 그대로 천황의 본심이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조(詔) 즉 천황의 명령이라고는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문서이며, 공과 사에는 언제나 본심과 표면상의 명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한 관료가 불상사를 저질렀다고 하면, 징계처벌을 받거나 심할 경우 퇴임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의원면직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퇴직금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면 온정 조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경우 한국이나 일본은 거의 비슷하다. 특히 관료가 사직 할 경우라면 관보에도 실리는 게 일반적이며, 이상과 같은 경우, 관보에 「그 책임을 물어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는 쓰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국가나 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통해 추론 할 수 있듯이 공문서라고는 해도 반드시 바르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개인이나 국가도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을 고할 경우도 있다. 다만 그러한 상식이 교과서를 집필한 학자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이 기록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내지는 공문서이기 바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다면 때로는 역사의 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지 않을까 한다.

공문서에 명문화 되어있는 「중생구제·불법홍응」이 진실 된 목적이 아니라면 대불은 왜, 무엇을 위해 조성 된 것일까?

그 검토를 위하여, 먼저 대불을 건립하기에 이르는 쇼무천황까지의 역사에 대해 확인해 둘 것이 있다.

652년 진신노란(任申の亂・じんしんのらん)이 일어났다. 진신노란은 덴치(天智)천황의 황태자 오토모(大友)황자와 덴치천황의 아우인 오아마(大海人) 황자(후의 덴무천황・天武天皇) 사이에 천황의 자리를 두고 되풀이 된 다툼이다. 진신노란에 대한 공식발표에 따르면, 덴치천황은 최초 동생인 오아마 황자에게 「俺が死んだらお前に天皇の位を譲る」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나자 실자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침내 약속을 깨고 말았다. 약속이 달라지자 화가 난 오아마 황자는 덴치천황 사후, 반기를 들고 진신노란을 일으켜 덴치천황의 황태자인 오토모황자를 살해, 스스로 천황의 자리에 즉위하였는데, 그가

---

도리어 무익한 노동에 혹사당할 뿐이어서 부처님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서로 중상하여 죄인을 만들어낼까 두렵다. 혹시 한 포기 풀이나 한 줌 흙이라도 가져와 불상 조성에 협력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허락하고 이를 받아들여라. 국가의 관리나 공무원은 이 조립사업을 빙자하여 백성의 생활을 어지럽히거나 무리한 세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국에 이러한 취지를 포고하고 나의 이와 같은 심정을 알리도록 하라.

바로 덴무천황이다. 즉 여기서 진신노란의 결과 덴무천황 계통이 승리하고 남자로서 황통(皇統)이 계승되어졌다는 것을 짚어두고자 한다.

710년, 나라의 수도인 헤이조쿄(平城京)를 연 것은 이 덴무천황 계통의 겐메이(元明)천황이지만, 겐메이천황은 여성천황이다. 그리고 겐메이천황의 뒤를 이어 겐쇼(元正)천황이 황위를 이어 즉위하지만, 이 천황 역시 여성이었다. 여성천황이 2대 이어진 후, 남성천황이 즉위하게 되는데 바로 대불을 건립한 덴무천황계인 쇼무천황이다.

여성 천황에 대해서는 시비(是非)가 있지만, 여성천황과 여계천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면, 여성천황이란 천황이었던 여성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여계 천황이란 모친으로부터 천황가의 피를 이어받은 천황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겐메이천황이나 겐쇼천황이 천황가와와는 다른 별도 혈통의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 아이는 천황가의 피를 모친으로부터 이어받았지만 부계로부터는 이어받지 못했다. 이 경우의 누군가가 천황에 즉위할 경우, 여계천황이 되는 것이다. 겐메이천황도 겐쇼천황도 여성천황이었고 여계천황은 아니었다. 일본에 여성천황은 몇 명 있었지만, 여계천황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이라고 해도 천황은 어디까지나 남계인 것이다. 문제는 천황은 남계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이 시기에 2대나 연속하여 여성천황이 즉위했던 것일까 하는 점이다.

사실은 덴무천황의 손자에 해당하는 몬무(文武)천황의 사후, 후에 쇼무천황이 되는 오비토(首・おびと)황자는 이미 태어나 있었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황위를 이을 수 없었다. 따라서 오비토 황자가 무사하게 자랄 때 까지 연결 매체자로서 겐메이・겐쇼라는 두 사람의 여성천황이 황위를 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간신히 성장한 오비토 황자는 당시 권세를 쥐고 있던 후지와라후히토(藤原不比等・ふじわらふひと)의 딸 고묘시(光明子・こうみょうし)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왕비였지만 황후는 아니었다. 당시 천황은 몇 명의 왕비를 거느릴 수는 있었지만 황후만은 황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유는 천황의 서거 시에, 뒤를 이을 남자아이가 어릴 경우,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황후가 천황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남계에서 천황의 혈통을 계승하지 않으면 천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황후를 황족으로 제한하였던 까닭이다. 실제 덴무천황의 황후로서 그 황위를 계승한 지토(持統・じとう)천황은 덴치천황의 딸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쇼토쿠(聖徳)태자를 황태자로 한 스이코(推古・すいこ)천황은 비다츠(敏達・びだつ)천황의 황후이지만, 겐메이(敏明・きんめい)천황의 딸이기도 하다. 고묘시는 후지와라후히토의 딸이므로 천황의 왕비는 될 수 있었지만 황후는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727년에 고묘시가 쇼무천황의 황자를 생산함으로써 고묘시를 황후로 삼고자 하는

후지와라씨의 음모가 시작된다. 여기에 격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던 이가 나가야노오키미(長屋王・ながやのおおきみ<sup>18)</sup>)였다. 덴무천황의 손자인 나가야노오키미는 남자 혈통이 적었던 당시 황실에서 상당히 황통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는 720년 후지와라후히토가 죽게 되자 우대신(右大臣)에 올랐고 724년 쇼무천황이 즉위하자 좌대신이 되어 조정에서 큰 발언력을 갖게 되었다. 그가 고묘시를 황후로 격상시키는 것에 철저한 반대를 하고 나서자 후지와라씨에게 그는 큰 방해적인 존재였다. 그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고묘시가 생산한 쇼무천황의 황자가 1세가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된다. 이 일을 나가야노오키미를 실각시킬 사건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즉 황자가 죽게 된 것은 나가야노오키미가 행한 저주 때문이며 모반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죄를 날조하는 것이다. 조선 황실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여성들과 그 친·인척들의 음모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사건은 날조된 것이었지만 저택에 감금당한 나가야노오키미는 처자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한다. 이 사건을 「長屋王の變」이라 한다. 방해자가 없어진 후지와라씨는 나가야노오키미의 사후 겨우 반 년 만에 고묘시를 황후로 앉히었다. 일본사상 최초로 천황가의 혈통이 아닌 황후가 탄생한 것이다. 그 후 정치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후지와라의 4형제라고 불리는 고묘시의 오빠들이었다. 여동생이 정식으로 황후가 되었고 쇼무천황은 병약하여 여동생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후지와라씨에게 대항할 자는 없을 정도로 영화와 권세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런 중 737년 천연두가 대유행하면서 후지와라 가문은 마치 천벌처럼 후지와라씨 4형제 전원이 1년 후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 깊은 시름 속에서도 나가야노오키미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간 탓이라는 꺼림칙한 생각을 하게 된 후지와라 가문은, 이 불행한 천재(天災)를 나가야노오키미의 저주라고 두려워하였다. 이후 후지와라씨의 불행은 계속되었다. 후지와라 히로츠구(藤原広嗣)라는 일족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현재는 전쟁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생각하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고 II장에서 기술하였듯이, 당시 나쁜 일은 모두 인재든 천재든 원령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인간이 있다면, 대저 그러한 인간의 심저에는 악령의 움직임이 발동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 날에도 일본사회에는 악마에게 홀렸다(悪魔に魅入られた)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시로서는 전쟁은 그야말로 원령의 소행에 의해 일어난다고 믿었다.

계속되는 불행 즉 저주를 두려워한 후지와라씨는 여기서,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도(遷都)이다. 천도라 함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황의

18) 天武天皇13年(684年)·神龜6年(729年)·奈良시대의 황족. 관위는 左大臣 正二품. 황실 친척 세력의 거두로서 정계의 중진이 되었으나, 대립하던 藤原氏의 음모에 따른 「長屋王の變」 사건으로 자결하였다.

주거인 황거를 옮기는 것이다. 옛날에는 천황이 바뀔 때마다 황거의 장소를 이동하였고, 이상의 경우, 나가야노오키미의 저주와 천황의 죽음이라는 두려운 대상인 원령과 ケガレ로부터 달아나기 위함이었다. 그로부터 겨우 5년 동안 쇼무천황은 구니쿄(恭仁京・くにきょう), 나니와노미야(難波宮・なにわのみや), 시가라키노미야(紫香樂宮・しがらきのみや) 그리고 헤이조쿄(平城京・へいじょうきょう)로 천도를 옮기면서 결국 헤이조쿄로 다시 돌아오는 무려 4번의 천도를 반복하였다. 단기간에 수도를 몇 번이나 옮긴다는 것은 범상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마지막에는 본래의 헤이조쿄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극히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천도를 반복해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 저주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천황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대불건립이다. 당시 큰 대불을 더구나 주물로 만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대단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대불조성이라는 자체는 당시 이미 중국의 선례가 있었으므로, 아마도 중국을 다녀온 승려의 제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續日本紀』에는 740년(天平11년) 쇼무천황이 어느 절에서 불상을 보고 대불 조성을 생각했다는 기록<sup>19)</sup>이 남아있다.

여기서, 본고에서는 전술하였듯이 쇼무천황이 내린 대불조성의 조칙(大仏造立の詔)에 쓰여진 내용이, 본심이 아닌 표면상의 명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제시를 하였었다. 과연 대불조성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즉 그것은 쇼무천황이 두려워하고 있던 나가야노오키미의 저주로 생겨난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즉 쇼무천황의 최대의 고민은 자신의 뒤를 이을 황자를 보지 못한데 있었다. 당시 이미 고묘시는 딸(安部内親王・후의 孝謙天皇・こうけんてんのう)을 생산하여 황태자로 삼고 있었지만 여성천황이 된다고 하여도 여계천황은 인정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딸을 이어받을 황자는 아무래도 필요했을 것이다. 즉 황통을 계승할 수 있는 남자의 탄생이야말로 쇼무천황이 대불을 조성한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쇼무천황은 스스로 대불 조성 중에 대불에 엎드려 자신은 불교의 하인이라고 하는 선언예식을 거행하였다. 이 때 대불건립 칙령을 공포한지 6년이 경과하고 있었다. 아마도 쇼무천황의 건강상태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던 같으며, 의식을 끝낸 천황은 황태자인 아베나이신노(安部内親王)에게 양위하고, 일본 역사상 남자로서는 처음 태상(太上)천황(=上皇)이 되었다. 마침내 3년 후인 752년 대불이 완성되지만, 그 후 4년이 지나 쇼무천황은 결국 남자 황자를 얻지 못한 채 서거한다. 아베나이신노(安部内親王)는 47대 고켄(孝謙)천황으로 즉위하게 되며 덴무천황의 손자에 해당하는 오이(大炊・おおい)왕을 황태자를 삼았다. 즉위 9년 후 758년, 오이왕

19) 石沢元彦(2013)『学校では教えていない日本史の授業』, p.250

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상황이 된다. 쇼무천황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오이왕도 덴무천황의 피를 이은 남계로 계승한 천황이다. 그런데 오이왕의 수족이었던 후지와라노나카마로(藤原仲麻呂)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한 고켄천황은 오이왕을 폐위하고 다시 복위하게 된다. (그런데 오이왕은 그 후 천황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메이지시대 준닌(淳仁)천황으로 추호(追號)되었는데, 이 역시 천황에게 정권이 돌아오자 역대천황 중 한(限)을 남긴 분들에게 그 영혼을 진혼(鎮魂)함으로써 일본을 수호해 주기를 바라는 바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때 진신노란(任申の乱) 당시, 덴무천황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은 덴치천황의 황자인 오토모(大友)황자에게도 고분(弘文・こうぶん)천황이라는 명이 추호된다.)

다시 즉위한 고켄천황은 앞전의 치세와 구분하기 위하여 쇼토쿠(稱徳)천황이라는 새 이름이 부여되었으나, 결국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서거하자, 누구에게 황위를 잇게 할 것인지 조정은 협의 끝에 덴치천황의 제7황자의 제6자 시라카베(白壁)왕을 즉위토록 하였다. 이가 고닌(光仁)천황이다. 즉 진신노란 이후 계승되어 왔던 덴무천황의 계통은 여기서 끝나고, 패자였던 덴치천황계 혈통이 황통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고닌천황은 당시 60세를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업은 이를 수 없었으며, 본격적으로 덴치천황계 천황으로서 정치를 펼친 것은 고닌천황의 뒤를 이은 간무(桓武)천황이다.

### 3.1 대불과 나라불교의 방치(放置)

본 장에서는 나라의 대불은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게 조성한 대불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둔 채 방치했는가 하는 점에 관해 검토한다.

간무천황의 치세에 최대의 과업은 무엇보다 헤이안쿄에의 천도이다. 간무천황은 천도를 하면서 나라에 대불을 남기고 왔다. 그렇게 큰 대불을 가져 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운반에 문제가 있었다면 때마다 칙사를 파견하여 기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다이지(東大寺・とうだいじ : 奈良県 奈良市에 있는 화엄종의 대본산 사원)에 기부할 하든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간무천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불건립은 국가의 큰 프로젝트였으며, 오랜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소비하며 국가호국을 위해 조성한 대불이었다. 따라서 그리 간단히 팽개칠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일본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光に天皇のあとをちだ桓武天皇は、あらたな政治基盤を確立するため、寺院などの旧勢力の強い奈良から、水陸交通の便利な山城の地に都を移すことを考え、まず長岡京へ、津尾で794年平

安京へ遷都した<sup>20)</sup>。

이상의 해설대로라면 구세력이라고 할 나라의 대불세력과 손을 끊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으나 사실은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간무천황은 헤이안쿄로 천도할 무렵, 당시 가장 우수한 인재였던 젊은 승려 사이초(最澄·일본 천태종의 개조)를 당으로 유학을 보내어 새 불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명하고 있다. 이 사이초와 함께 당에 건너갔던 또 한명의 승려가 구카이(空海·진언종의 개조)이다. 사이초는 귀국 후, 히에(比叡)산에 엔라쿠지(延曆寺·えんりやくじ)를 열고, 후에 황실로부터 덴교다이시(伝教大師·でんぎょうだいし)라는 덕이 높은 승려에게 내리는 존칭을 수여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가이는 고야(高野)산에 곤고푸지(金剛峯寺·こんごうぶじ)를 창건하고 후에 고보다이시(弘法大師·こうぼうだいし)라는 대사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문제는 간무천황은 왜 새로운 불교를 원했던 것일까, 라는 점이다. 인간이 종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것은 소위 일반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장수나 행운, 국가의 안녕 등일 것이다. 종교의 힘은 그러한 것을 부여해줄 능력에 있다. 교과서의 기술대로 나라불교의 세력이 강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라불교가 종교로서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힘이 없는 종교를 인간들은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나라불교가 아닌 새로운 신흥불교를 원한 것은 대불로 상징되는 나라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대불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디 쇼무천황이 큰 재정적 부담을 무릎 쓰고 대불을 건립한 것은 남자 황자의 탄생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불에 얽드려 하인이라는 선언을 하면서까지 빌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황녀인 쇼도쿠천황을 끝으로 덴무계의 황통은 끝나버리고 말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으며, 더구나 혈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길흉의 보아 조짐이 안 좋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조짐이 안 좋은 덴무계의 수도와 함께 대불을 버리고, 더 힘이 있는 새 신흥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3.2 헤이안쿄에의 천도

대불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견해를 달리해 보면 대불로서는 나가야노오키미의 저주를 진압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천도로도 대불조성으로도 진압할 수 없었던 저주로 결국 덴무

20) 『もう一度読む山川日本史』, p.47



계의 황통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것은 간무천황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황 자신도 원령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닌천황은 간무천황에게 황위를 물려주면서「네 자식이 아닌 남동생인 사와라신노(早良親王・さわらしんのう)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그렇지만 간무천황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싶었고, 사와라노신노가 음모를 세우고 있다는 죄를 조작, 섬으로 유배시키고 말았다. 음모를 피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던 사와라신노는 유배 도중 단식투쟁을 벌이다 아사하고 만다. 소위 분사(憤死)이다. 그 7년 후 간무천황이 헤이안쿄를 버리고 최초로 수도를 옮긴 나가오카쿄(長岡京・ながおかきょう)에서는 얼마지 않아 여러 괴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기근에 역병(疫病), 황태자의 발병, 홍수에 의한 강의 범람 등이 연속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점(占)을 본 결과, 사와라신노의 저주 때문이라 하므로 간무천황은 더 이상의 재난의 발생이 두려워 나가오카쿄를 버리고 헤이안쿄로 천도하게 된다. 또한 저주를 두려워하던 간무천황은 헤이안쿄를 지키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그 하나가 풍수(風水)였다. 지금은 풍수를 과학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물리도 화학도 없던 당시, 풍수는 훌륭한 과학이었다. 왜냐하면 풍수는 바람이 왜 부는지, 인간은 어떠한 활력으로 움직이는지, 등과 같은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리 있게 설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당시 최첨단과학이었던 풍수는 특히 장소를 중시 여겼다. 예를 들면, 수도는 어떠한 장소가 대대손손 번창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풍수 상 가장 적합한 장소는 사신상응(四神相應)사방의 신동은 청룡, 서는 백호, 남은朱雀, 북은 현무)의 장소이다. 즉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물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길이 나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이 흐르는 곳이다. 그러한 지형에는 각각의 방향을 수호하는 동물의 신, 즉 북의 현무(玄武), 남의朱雀(朱雀), 동의 청룡(靑龍), 서의 백호(白虎)가 중앙에 위치하는 수도를 수호해 준다고 믿었다.

간무천황이 새로운 도읍지로 삼은 헤이안쿄(현재의 교토)는 그야말로 이상의 사신상응의 토지였다. 북으로는 작지만 후나오카(船岡・ふなおか)산이, 남으로는 현재는 없어졌지만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하며, 동으로는 가모카와(鴨川・かもがわ)가 흐르고, 서쪽으로는 산인(山陰・さんいん: 일본지역의 하나로, 혼슈서부 중 일본해에 면한 지역)으로 큰 길이 나 있다. 풍수적으로는 완벽한 도시였지만, 원령을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던 간무천황은 수도로서 이상적 장소에 위치한 헤이안쿄를, 더구나 새롭게 수입한 신흥불교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선, 재액이 들어오는 방향이라는 귀문(鬼門:방향으로는 북쪽)을 막기 위해 사이초에게 토지를 부여하여 히에산에 엔라쿠지(延暦寺)를 건립하였다. 다음으로 수도의 입구인 남대문에는 좌우(동서)에 동사(東寺)와 서사(西寺)라는 두 개의 절을 건립하였다. 현재 서쪽 절은 없어졌지만 구카이에게 칙령으로 내린 동쪽 절은 지금도 건재하여 그를 증명해 준다.

#### 4. 원령과 고료신앙(御靈信仰)

풍수와 불교라는 방법으로 사와라노신노의 저주로부터 수도를 지키고자 한 간무천황이었지만 결코 저주를 완전하게 불식할 수는 없었던 것 같으며, 어떻게든 황통을 지키고자 한 절실함 속에 생겨난 원령진혼을 위한 방법, 곧 원령의 한을 위로하고 신으로서 정중히 받들고 제사를 올려 그 강한 힘을 저주가 아닌 국가수호에 사용해 주기를 바란 것이 고료신앙(御靈信仰)이다.

헤이안 시대를 통하여 고료신앙에 기초한 진혼행사인 고료가이(御靈會)는 궁중행사로서 행하여졌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료가이는 간무천황의 죽음으로부터 57년이 지난 863년 신센엔(神泉苑・しんせんえん:교토시에 있는 東寺 진언중 사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이 때 사와라노신노의 영(靈)도 제사로 모셔지고 있다.

이러한 원령신앙이 하나의 완성형으로 보여지는 것이 헤이안 중기의 스가하라노 미치자네<sup>21)</sup>(菅原道真・すがわらのみちざね)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천신신앙(天神信仰)이다. 스가하라노 미치자네는 다이고천황 시절, 우대신까지 올랐던 상당히 우수한 인재였지만, 너무 우수했던 탓에 좌대신 후지와라노 도키히라(藤原時平<sup>22)</sup>)의 원성을 사 억울한 죄명으로 규슈의 다자이후(大宰府)에 좌천된 인물이다. 좌천 2년 후 미치자네는 다자이후에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미치자네의 사후 교토에서는 이변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미치자네를 함정에 빠뜨린 정적 후지와라노 도키히라는 돌연히 병사하였고, 황태자, 황태손들의 연이은 죽음, 그리고 마침내는 천황의 처소였던 세료덴(清涼殿・せいりょうでん)에 낙뢰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기에 이른다. 이 때 사망한 인물이 미치자네를 함정에 빠뜨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연이은 재난은 미치자네의 저주로 받아들여진다.

어떻게든 미치자네의 원령을 진혼(鎮魂)하여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조정은, 그의 좌천을 철회하고 관위를 본래대로 되돌렸으며, 더구나 그보다 높은 관직을 부여, 진실로

21) 平安時代の 귀족, 학자, 한시인, 정치가. 참의인 菅原是善의 3남. 관위는 중2위, 우대신・太政大臣. 충신으로 그 이름이 높다. 宇多천황에게 중요되어 寛平の治를 지탱한 한사람이며, 醍醐朝에서는 右大臣으로 올랐다. 그러나 좌대신 藤原時平에게 참소되어 다자이후(大宰府)로 좌천되어 현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사후 천제지변이 끊이지 않으므로 조정에 대한 저주라고 하여, 천만천신(天滿天神)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 현재는 학문의 신으로 알려져 신앙받고 있다.

22) 平安時代 전기의 구계(公卿). 관백 藤原基経의 장남이며 젊어서 입신출세하였으나 부친의 죽음 당시에는 아직 젊었던 관계로 宇多천황은 親政을 비롯하여 皇親인 학자 菅原道真를 기용하였다. 醍醐천황이 즉위하자 道真와 함께 左右大臣에 오르지만 점차 대립하여 道真를 大宰府로 좌천시켰다. 정권을 장악하자 의욕적으로 개혁에 착수하지만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너무 이른 죽음을 두고 원령이 된 미치자네의 저주라고 전해진다.

사과를 함과 동시에 덴만구(天滿宮)를 지어 미치자네를 천신(天神)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결국 원령신앙은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헤이안 중기에 고료신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일본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형태는 최초 저주를 피하기 위한 천도라는 형태로 보여지며, 다음 원령의 저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라는 불교에서 구원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장 두드러진 예가 나라의 대불 조성이었다. 그러나 대불조차 원령에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보다 새로운 신흥불교를 당으로부터 수입함과 동시에, 당시 최신의 과학적 풍수의 힘을 빌려 원령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원령의 힘이 강해진 탓인지 인간의 마음이 허약해진 탓인지 풍수와 신불교의 힘을 빌려서도 원령에 대적할 수는 없었다. 거기서 마침내 원령에게 사죄하고 예를 갖추어 진혼한다는 고료신앙이 탄생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왜 처음부터 사죄를 위한 진혼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술할 수는 없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역시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으며, 싫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 방법을 강구하여, 가능하면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 인정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에는 천도라는 형태를 통해 원령으로부터 도망친다든지 부처로부터 보호받으려 대항책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수도를 옮기는 천도도 불교도 풍수도 원령의 저주를 막을 수는 없었으며 결국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료신앙이라는 것은 원령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원령신앙의 발전계통 속에서 완성된 것, 즉 원령신앙의 최종형태라고 하겠다.

## 5. 결 론

일본의 원령신앙은,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잘 진척되지 못한 진혼행위가 천신신앙으로 대표되는 형태를 취하는 즉 신으로 모셔지는 단계(제사)에서 저주는 멈추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최초 원령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원령신앙에는 살아생전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주의 힘도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지배자의 권력구조라고 할 만큼 원령신앙의 영향은 강하고도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일본 지배계급의 선택, 정치적 판단에는 원령신앙이라는 것이 극히 농후하게 깊이 관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케가레사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원령사상에 대해

알아야 할 불가결한 이유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유의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원령신앙은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헤이안 중기에 고료신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일본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신앙이며, 그 형태는 최초 저주를 피하기 위한 천도의 형태로, 다음 원령의 저주로부터 보호받기위해 불교에의 구원 추구로 이어져, 그러한 가장 두드러진 예가 나라의 대불 조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불조차 원령에 대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보다 새로운 신흥불교를 당으로부터 수입하고 동시에 당시 최신의 과학이었던 풍수의 힘을 빌려 원령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원령의 힘이 강해진 탓인지 인간의 마음이 허약해진 탓인지 풍수와 신불교의 힘을 빌려서도 원령에 대적할 수는 없었고, 거기서 마침내 원령에게 사죄하고 예를 갖추어 진혼한다는 고료신앙이 탄생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령신앙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일본 교과서에 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文部科学省檢定済教科書, 高等学校地理歴史科用(2004)『詳説日本史 改訂版』山川出版  
 五味文彦 鳥海靖 日本國定教科書(2011)『もう一度読む』山川日本史』山川出版  
 福田アジオ외編(2006)『日本民俗學概論』吉川弘文館  
 福崎孝雄(2007)「血に対するケガレ意識」『現代密教』8  
 石沢元彦(2013)『学校では教えていない日本史の授業』  
 宮田登(1992)「生活意識と不淨觀/山伏神樂の宗教的要素」新人物往來社  
 김영희(2005)「일본의 민속학적 생활의식과 여성不淨觀-지노케가레를 중심으로」『일본어문학』제30집  
 \_\_\_\_\_(2007)「여인금제의 역사적 배경과 성역책정-산악신앙 슈켄도와 불교와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일본어문학』제38집  
 \_\_\_\_\_(2013)「일본의 생활의식과 여성不淨觀-여인금제와 케가레의식의 변천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2집  
[http://chushingura.biz/p\\_nihonsi/siryu/0101\\_0150/0108.htm](http://chushingura.biz/p_nihonsi/siryu/0101_0150/0108.htm)(검색일:2014. 3)  
<http://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12)  
<http://www9.wind.ne.jp/fujin/rekisi/onryo/onryo05.htm> (검색일: 2014.02)  
<http://ja.wikipedia.org/wiki/>(검색. 2014년 02)  
[http://www.amaochi.com/cont/main/main\\_091.html](http://www.amaochi.com/cont/main/main_091.html) (검색일: 2014.03)

---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일본인의 원령(怨靈)신앙

- 천도(遷都)사상과 대불(大佛)조성을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원령신앙과 케가레사상의 연계성, 그리고 원령신앙과의 관계 속에 조성된 나라의 대불(大佛)과 천도(遷都)사상에 대해 검토한다.

일본의 원령신앙은 지배자의 권력구조라 할 만큼 그 영향이 지배계급의 선택과 정치적 판단에 극히 농후하게 관련되고 있다. 원령신앙은 일본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처럼 헤이안 중기에 고료신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일본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신앙이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최초 천도라는 형태로, 그 다음 불교에의 구원 및 추구로 이어졌는데 곧 나라의 대불 조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불조차 원령에 대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새로운 신흥불교를 수입하고 동시에 당시 최신의 과학이라 할 풍수의 힘으로 원령에 맞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풍수와 신통불교의 힘을 빌려서도 원령에 대적할 수는 없었고, 마침내 원령에게 사죄하고 예를 갖추어 진혼하는 고료신앙이 탄생하게 된다. 이것은 일본인의 케가레관념 중 특히 시에(死穢)사상의 원류에 일본 천황가의 원령사상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한 요소라고 하겠다.

Japanese Belief of sprit

- usually about the way of haven idea and great image of Baddha -

In this monuscript I look into the connection between the belief of sprit and KEGARE idea. and also about NARA Japanese belief of sprit is important. Because it can affect the decision of politician. The belief of sprit existed long time age and It was a afraid the effort to overcome the afraid appeared as the way of heavey the next effort was the rescue of Buddha. And it become the great of Buddha. But it wasn't work well. Sp People found some other new Buddha or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But they didn't work also family. GORYOU that apolozing to the sprit appeared. It's a fact that show the SIE idea.